

P4. 농촌 전통문화보전 기능의 인식 분석과 화폐가치

김은자*, 김영, 안윤수, 이상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우리나라는 농경문화가 주류를 이루어 발달해 온 문화권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생활문화에서는 농업의 특성과 지역공간에 기반을 둔 두레나 품앗이 등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발달되어 왔다. 설날과 보름,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의 세시풍속과 많은 전통문화의 요소는 농업·농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보다 쉽게 유지되고 보존되어진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각 지역 특유의 크고 작은 문화제가 있고, 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음악, 무용, 놀이, 음식, 생활양식 등이 농촌의 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면면히 보전 전수되고 있다. 고유한 농촌의 전통문화는 생활과 공해에 찌든 도시민들에게 큰 위안과 휴식, 평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고유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한편 WTO체제의 세계무역질서는 농산물수출국들이 비교우위론적 무역질서를 내세우며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일본, EU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수출국들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자 농업과 농촌은 식량과 섬유 생산이라는 1차적 기능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다기능적 특성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 후 FAO, OECD 등에서 농업·농촌의 다기능적 특성을 선언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중에서 널리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농촌의 전통문화보전 기능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그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농촌의 공익기능 논리에 타당성을 배가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태도,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기능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등을 SPSS 및 Shazam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현황은 남자가 58%로 여자보다 다소 많으며, 도시거주자가 78.9%를 차지하였다. 연령적으로는 20대, 30대와 40대 이상의 비율이 각각 50%내외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임금생활자 36.1%, 자영업자 18.6%, 주부 15.9%, 전문직 종사자 14.0%, 농업인 6.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기능을 전통생활문화보전, 전통영농용품보전, 유형전승문화보전, 무형전승문화보전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기능의 존재에 대해

서는 55.9%가 긍정적인 반응을, 10.2%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인식하고, 성장지역은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보다 농촌에서 성장한 경우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중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의 정도가 낮았으며, 응답자의 연령, 소득, 직업, 학력,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가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의 농업·농촌 관련 보도를 대하는 경향은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시청하는 경우가 94.4%로 높으며 이중 매우 관심있게 보는 경우도 26.1%에 이른다. 이에 반해 관심없다라는 응답은 5.6%에 불과하여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로 보면 대중매체에 대해 매우 관심 있는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의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관심 없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섯째, 농촌의 전통문화보전 기능에 대한 개별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고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농촌 전통문화보전 기능의 화폐가치 평가액은 1조 6천억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어떻게 하면 농촌 공익기능을 극대화하여 농촌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직접지불제의 형태 등으로 나타나 부분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좀더 적극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국제관계에서 협상전략으로만 이용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 및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관한 인식에 있어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개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양면성을 지닌다. 세계화는 획일적 문화의 보편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각 민족 특유의 문화예술, 먹거리 등이 인기를 얻게 되는 양면성도 지닌다. 따라서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 중에서 우리 고유성이 살아있는 전통문화보전 기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반갑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문화가 곧 경제력”이며 “그 국가나 지역발전을 가능하는 잠재력(Potential Power)”이기 때문에 농촌의 전통문화보전기능은 바로 지역경제와 복지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유산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약화된 문화생산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성원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여야 한다.